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맨 오른쪽)과 중앙총회위원장 법등 스님(사진 맨 왼쪽)을 필두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이 1월 12일 지진·해일 피해민들을 위한 탁발에 나섰다. 매서운 겨울 바람으로 거리는 얼어붙었지만, 보시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손길은 따뜻했다.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 자비를 보냅니다... 작지만 보태 주세요

고아원 건립 등 피해 지역에 대한 구호사업 지속 전개

조계종, '자비의 탁발' 현장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냅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살속까지 파고든 1월 12일 오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차원에서 마련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을 위한 자비의 탁발'이 하 자비의 탁발에 참가하기 위해 스님과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불자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발디딤틈이 없었지만 남아시아에 자비를 전하기 위한 불자들에게 좁은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날 '자비의 탁발'에는 피해지역 출신 스님 10여명도 동참했다. 스리랑카 출신의 무다왕사(27) 스님은 "지진해일 피해를 돕기 위해 조계종 스님들이 탁발에 나서서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마

움을 전했다.  
2시부터 진행된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탐욕을 씻어내고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나눔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선언이 오늘 이 탁발행사의 가장 큰 취지"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법회가 끝나자 300여 사부대중은 거리로 나섰다. 인사동 거리에서 탁발행렬을 보고 성금을 접수한 이의숙(50·서대문구 홍제동)씨는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거리에 나온 스님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탤다"고 말한다.  
인사동에서 대기(茶罷)가게 '일광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규영(48)씨는 "나눔의 정성을 보태주세요"라며 가게를 방문한 법장 스님의 발우에 흔쾌히 성금을 더했다. 여씨는 "얼얼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남아시아 피해민들을 돕는다고 해 마음을 냈다"며 뿌듯해했다.



시민들이 보시한 성금을 연꽃 모금함에 모았다.

1시간여 동안 계속된 '자비의 탁발'은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종로 금강제회-종로타워-제일은 행-조계사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따뜻한 동참을 유도했다.  
바람을 가르고 다시 되돌아온 조계사. 스님들은 시민들의 정성을 모금함에 차례차례 넣었다. 탁발 결과 모아진 성금은 모두 3천1백30만6095원.  
탁발행렬을 보고 택시를 운전하던 한 거사는 차를 멈추고 나와 성금을 보시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라고 아쉬워하던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은 행렬을 뒤따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JTS(대표 유수도) 1월 11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회원 40여명과 텔런트 고두심, 박한별, 봉태규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역 돕기' 거리 모금행사를 진행해 2백19만4270원의 성금을 모았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정토법당, 해운대역 등에서 성금 모금

## 부산

부산 정토법당은 1월 11일 해운대역 등에서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거리 성금 모금에 나섰다.  
급강하한 기온 탓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종 걸음을 치던 사람들은 "천원으로 남아시아 지진 피해민을 돕자"는 보살들의 호소에 성금을 냈었다.  
모금에 나선 한 보살은 "늙어서는 젊은 용돈을 쪼개 성금을 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인정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산 정토법당은 2시간동안 이어진 이날 성금 모금에 이어 지속적으로 거리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 지역으로 모금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산 정토법당도 시민들과 함께 거리 성금 모금에 나섰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 비웃 사암 및 단체 모금 법회

## 대구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지진 해일 피해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남아시아인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십시오."  
1월 8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대구에는 지진해일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아시아인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불자들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려 퍼졌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과 신도, 동화사 강원 학인 스님과 대구경북 포교사단, 운전불자 연합회 대구지부, 교사불자회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보현사에서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금 모금법회를 갖고 보현사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이날 모인 불자들은 저마다 손에 문구가 적힌 각종 현수막과 피켓, 전단지, 모금함을 들고 대구시민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할 것을 권했다.  
이날 동참 모금액은 모두 600여만원으로 동화사는 1월 말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해 모아진 성금을 한꺼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자비를 호소하는 불자들.

배지선 기자

#월정사와 지역 기관장들 탁발 행사

## 강릉

월정사주지 정념은 1월 11일 오후 강릉시까지 중심가에서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영동지역 말사 스님과 월정사 3기 단기출가학교 학생, 신도, 강릉지역 기관장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였다.  
주지 정념 스님 발우를 든 스님들과 모금함을 든 신도들은 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자비의 손길을 호소했고, 길을 지나가던 시민과 학생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이날 모두 600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월정사는 18일 원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다시 한번거리 탁발 행사를 벌였다.



월정사 사부대중이 시장을 돌며 탁발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해인사(18일)·마곡사(19일)·수덕사(20일) 등 행사 예정

합천 해인사주지 현웅은 1월 18일 오후 3시 대구·장원·마산 지역 일대에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벌인다. 해인사는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건립운영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산 수덕사주지 범지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20일) 홍성(21일) 서산(24일) 당진(25일) 태안(26일) 등 5개 지역에서 차례로 '자비의 탁발' 행사를 불행한다. 공주 마곡사주지 진각도 1월 19일 대천역에서,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은 1월 18일 의성·안동·영주 지역에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운사(회주 우화)는 1월 22일 대구 시내에서 '자비의 탁발 거리모금행사'를 갖는다.

### 이번 주,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 법회 이벤트

아이벡의 IT (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c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1. 가고 싶은 사찰은 네비게이션을 보며 빠르고 정확히 찾아갈 것!
2. 수백 권의 경전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바로바로 예습할 것!
3. 큰스님의 중요 법문은 음성녹음과 다운받은 동영상으로 다시 볼 것!
4. 큰스님과 친견을 원할 때에는 화상통화로 간단히 해결할 것!

**단행본의 기회!**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HP rw6100 최저가 특별모금 2가지

1.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HP rw6100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2.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에게는 초기수납금 55,000원에 24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HP rw6100 스마트폰의 혜택과 다양한 주변기기를 드립니다. (월 평균 할부금 24,291원)

MP3·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벡'

한눈에파악하면 1~1NAV+아이벡 7,850,000원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입문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벡(=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